

하나도 안 변했다

김도후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

날씨: 파란 하늘, 홍시가 더 붉게 보이는 맑은 날씨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셨다.

“저번에 담근 더덕주 어디 있지?”

“잡채가 좋겠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할머니도 덩달아 바빠지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늘 이렇게 분주한 이유는 바로 할아버지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할아버지 댁에 놀러 오시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댁은 고소한 음식 냄새와 할아버지의 신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대구에서 살다가 고향인 고령으로 이사를 가셨다. 대구에 계실 때는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움직이셨는데 고령으로 가서는 네잎클로버를 찾는 토끼처럼 활기가 넘치셨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곳에다 집을 지으셨다. 동네에서

는 제일 높다고 할 수 있는 2층집이다. 옥상에 있는 나무 평상에 누워 별도 보고, 낮잠도 주무신다. 그럴 때마다 “천국이 따로 없다.”라며 꺄꺄 웃으신다.

할아버지의 친구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 할아버지를 반겨 주기 위해 오늘 다 모이기로 하셨다. 사실 고향은 인구가 점점 줄어 걱정이 많은 곳이다. 이웃집으로 가려면 10분은 걸어야 한다. 동네에는 어린이들 대신 강아지들만 쫄랑쫄랑 돌아다닌다. 어쩌다 만난 이웃 할머니께서 어린이를 본 지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담 너머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더니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대문이 없어서 마당으로 곧장 들어오신 할아버지의 친구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다.

“이야, 나는 국민학교 때랑 얼굴이 똑같다.”

“이 자숙아, 니도 하나도 안 변했다.”

할아버지는 옛 친구를 만날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신다. 초등학교 때와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할아버지의 말은 순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친구들 얼굴에는 자글자글 등고선 같은 주름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눈을 맞은 것처럼 하얀 머리,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걸걸한 목소리가 초등학교 때와 절대 똑같지 않다는 걸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텐데 할아버지는 늘 똑같다고만 하신다.

“한 수만 물리자.”

“머리카노, 그냥 졌다 캐라.”

장기판에서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듯했지만 이내 하하하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할아버지는 다리에 용수철을 단 것처럼 통통 튀는 신나는 발 걸음이셨다. 언제 허리가 아팠냐는 듯이 무거운 더덕주도 번쩍 들어 올리셨고, 흥얼흥얼 콧노래도 부르셨다. 옛 친구들이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았다.

더덕주 때문인지 아니면 흥이 올라서인지 할아버지들의 얼굴은 흥시처럼 빨갛게 익으셨다.

오늘 할아버지들의 만남을 보면서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도 먼 훗날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반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너는 초등학교 때와 똑같다.,” “그때랑 하나도 안 변했다.”라며 웃을 수 있을까?

어제 박수호가 계주 선수에 뽑히지 않았다고 운 것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놀려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선생님 몰래 학교 마당에 있는 감을 따던 이야기도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할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도 안 변했다.,” “너는 초등학교 때와 똑같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면 슬며시 웃음이 난다는 할아버지를 보며 나도 지금 만나는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